

서울 강남구 신사동

‘더 마블스’ 관심 뜨거운 박서준… 재력이 “와우”

어린 시절 꿈이 많은 아이였던 박서준(본명 박용규)은 야구선수가 되기 위해 시간이 날 때면 틈틈이 친구들과 야구 연습을 했다. 하지만 호리호리한 체격으로는 힘들다는 아버지의 조언에 야구선수의 꿈은 이내 포기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큰 키를 강점으로 모델을 꿈으로 정했다. 하지만 내성적인 성격이 문제였다. 남 앞에 나서기를 주저하는 성격을 개선하기 위해 중학생 때 애니메이션 동아리에 가입해 학교 축제에서 만화 캐릭터 코스프레를 하고 무대에 섰다. 그 날 이후 많은 관객으로부터 주목받는 것에 행복함을 느껴 배우로 꿈을 바꿨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연기학원에 다니면서 새벽 3시까지 독서실에서 공부를 병행해 좋은 성적을 받았다. 성실한 모습에 열정을 인정한 부모님은 배우를 해도 된다고 허락했다.

서울예술대 연기과를 졸업한 뒤 2011년



방용국의 'I Remember' 뮤직비디오 출연으로 연예계 활동을 시작했다. 같은 해 영화 '퍼펙트 게임'에 철구 역으로 단역 출연하며 배우의 길을 걸었다.

2012년 KBS2 드라마 '드림하이2'에서 마성의 아이돌 시우 역으로 본격적인 연기 활동을 시작해 차츰 얼굴을 알렸다. 이후 MBC '금 나와라, 뚝딱', SBS '따뜻한 말 한마디', tvN '마녀의 연애', MBC '킬미, 힐미' '그녀는 예뻤다' 등 여러 드라마에서 주연을 맡아 일약 톱스타로 발돋움했다.

특히 그는 '금 나와라 뚝딱'으로 코리아 드라마 어워드 남자 신인상을 수상해 대중에게 존재를 각인시켰다.

2015년 '그녀는 예뻤다'에서 과거엔 동등하고 소심한 성격이었으나 잘생긴 외모를 갖게 된 잡지사 부편집장 지성준 역을 훌륭히 소화해 연기와 미남 배우로 자리 매김했다. 좋은 연기력으로 '킬미, 힐미'와 '그녀는 예뻤다'로 MBC 연기대상 4관왕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이후 '악의 연대기' '뷰티 인사이드' '청년경찰' '사지' '드림 콘크리트 유토피아' 등의 영화와 KBS2 '쌈 마이웨이', JTBC '이태원 클라쓰' tvN '김비서가 왜 그럴까' 등 안방극장과 스크린을 오가며 배우 활동을 이어 갔다.

그중 2017년 '쌈 마이 웨이'에서 최고의 격투기 선수 고동만 역으로 출연해 배우 김지원과 달달한 로맨스 연기를 선보이며 두 자릿수 시청률을 견인했다.

예능에도 진출해 '박 2일' '서진아네' '윤식당' '윤스테이' 등에서 웃음 폭격기로 나섰다. 특히 KBS2 '박 2일'에서 팡손(뽕가를 뽑을 때 매우 운이 없는 사람)으로 웃음을 주더니 tvN '윤식당'에서는 열정 넘치는 아르바이트생으로 국내 시청자는 물론 스페인 사람들까지 사로잡았다.

박서준은 현재 8일 개봉한 마블 스튜디오의 신작 영화 '더 마블스'에 출연 중이다. '더 마블스'는 MCU(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슈퍼히어로 캡틴 마블의 두 번째 이야기로 우주를 지키는 히어로 캡틴 마블이 능력을 사용할 때마다 모니카 램보미즈 마블과 위치가 바뀌는 위기에 빠지면서 뜻하지 않게 새로운 팀플레이를 하게 되는 히어로 액션 블록버스터다.

박서준은 알라드나 행성의 군주이자 캡틴 마블의 남편 안 왕자를 연기했다. 그는 이미 올 4월 공개된 '더 마블스' 티저 예고편에서 강렬한 카리스마를 자랑한

박서준 배우

뉴스스



바 있다. 영화를 연출한 니아 다코스타 감독은 "박서준의 캐릭터는 정말 대단하다. 그와 캡틴 마블(브리 라슨 분)의 관계는 정말 재미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당부했다.

'어벤져스: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수현, '이터널스'의 마동석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MCU에 합류한 박서준은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배우로 우뚝 섰다.

이와 함께 그의 부동산 재력이 화제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빌딩(사진)을 2019년 12월 약 110억 원에 매입했다.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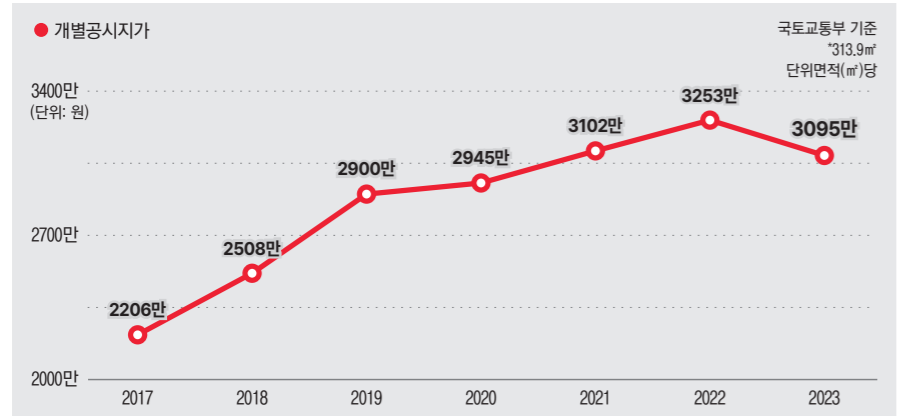
150억 원이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은 지하 1층~지상 5층, 대지면적 373.7㎡(약 113.04평), 연면적 1084.4㎡(약 328.03평)의 규모로 1986년 준공됐다. 매입 후 리모델링을 통해 입체적인 구조·감각적인 컬러로 건물 가치를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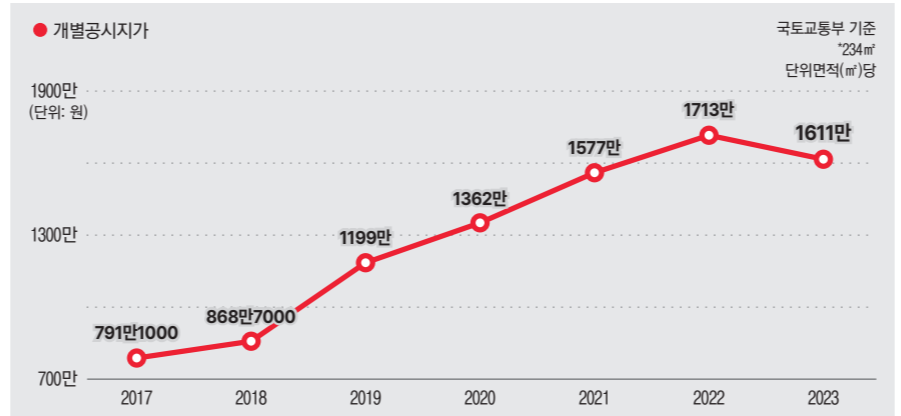
이 건물은 압구정 로데오역에서 500m 거리로 도보 7분이면 갈 수 있다. 또 시내 버스 정류장이 가까워 접근성이 좋다. 압구정 로데오 맥사상권 입지로 유동인구가 많은 편으로 임대 수요도 있다.

이동원 기자 dwlee@skyedail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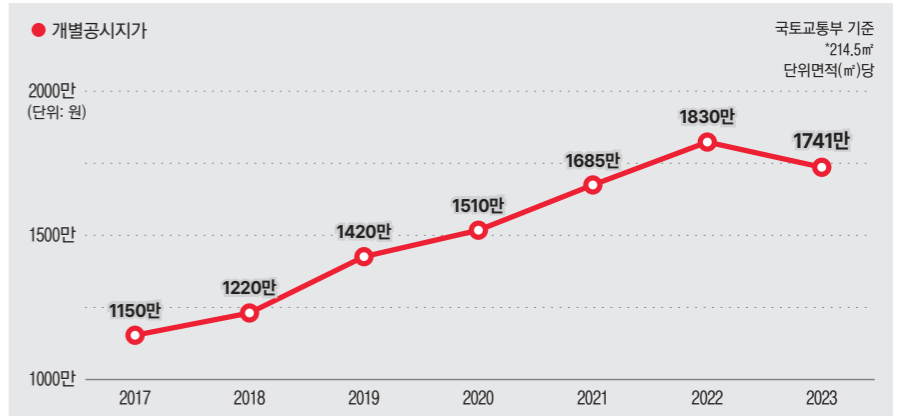
빌딩(서울 강남구 신사동)



빌딩(서울 강남구 신사동)



빌딩(서울 강남구 신사동)



최청자 전세대예체능대 무용과 교수

최청자 전 세대예체능대 무용과 교수는 중앙초·목포여고를 거쳐 세세대 전신인 수도여자사범대를 졸업했다.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 골드스미스 라벤센터 대학원에서 수학했다. 이후 한국 현대무용에서 한국적인 것을 현대적으로 승화시킨 특유의 작품을 선보였다. '볼림소리' '댄스사이클-시계' 등 100여 편의 작품을 안무했다. 작품마다 새로운 실험적 시도로 주체성이 담긴 춤을 선보여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발레와 한국무용·현대무용을 두루 섭렵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전통과 현대의 단순한 융합이 아닌 정감다리와 같은 조화의 균형을 추구해 왔다. 이는 서양의 동



적인 동작의 힘을 전통 춤에 담긴 정신성과 대립시켜 솜아나는 에너지를 섬세한 균형으로 조율하는 독창적인 무용을 추구하는 것이다. 세세대 교수로 재임하면서 최청자무용단(뿔마루 무용단)을 창단해 총예술감독을 맡아 국내 현대무용의 발전에 공헌했다.



육심원

육심원은 이화여대 동양학과 및 대학원 동양학과를 석사 졸업했다. 그는 "이 세상 모든 여성은 공주가 될 권리가 있다"며 '세상의 모든 여자는 공주' '여자는 여자가 기에 행복해야 한다'는 콘셉트와 도발적인 자신감으로 만화 기법을 접목한 파스텔 톤의 여성 인물화를 선보였다. 화제를 모으면서 2002년 인사동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어 대중과의 소통을 시도했다. 온라인 자체 홈페이지를 개설해 마니아층을 형성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이후 개인 이름을 딴 '육심원 디자인'이라는 기업을 세워 자신의 작품을 패션·코스메틱·리빙·아일랜드 등에 접목한 아티스트 상품을 판매



하면서 온-오프라인에서 대박을 터뜨렸다. 단 순히 상품을 판매하기보다 모든 여성의 내면을 다양한 모습으로 연출하고자 했고 이것이 여성을 잡는 데 성공했다. 또 MBC 드라마 '운명처럼 널 사랑해'의 주인공 장나라가 그린 그림이 실제 육심원의 작품으로 알려지면서 대중에 널리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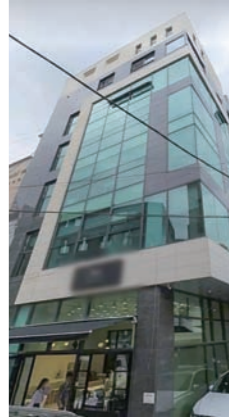


이동혁

이동혁 전 고려해운 대표이사 회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대 경영대학원과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을 수료했다. 고려종합운수 기획부 부장·고려종합운수 이사·오리엔트해운 대표이사 사장·고려해운 부사장·고려해운 대표이사 사장·카멜리아라인 부사장·한일항로선사협의회 부회장·한일항로선사협의회 회장·카멜리아라인 사장 등을 지냈다. 컨테이너선 화물 운송업체인 고려해운은 1954년 이학철 창업주가 설립한 회사로 주요 사업은 일본·중국·동남아·서남아·중동 지역 간 컨테이너선 화물 운송업이다. 2000년 철탐산업훈장 수상·2006년



종합물류기업 인증 획득·2006년 2억 불 수출의 탑·2008년 3억 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창업주 작고 후 장남 이동혁 전 고려해운 회장이 물려받아 1985년부터 2004년까지 대표이사직을 맡았다. 코오롱그룹 2대 회장인 이동찬 명예회장의 3녀 이혜숙 씨와 혼사를 치렀다.



맛깔나는 우리동네 부동산

네오밸류 '누디트 흥대' 문 열어... 공유주거·오피스 복합문화공간 기대

서울 마포구

라이프스타일 디벨로퍼 '네오밸류'는 서울 마포구 서교동 460-25 일원에 복합문화공간 플랫폼 '누디트 흥대'를 정식 오픈했다고 9일 밝혔다.

'누디트'는 프랑스어로 새로움을 뜻하는 'Nou'와 이야기를 의미하는 'Dit'을 결합한 단어로 리테일·오피스·주거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복합문화공간 브랜드다.

새롭게 오픈한 '누디트 흥대'는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흥대 일대에 1인가구를 위해 공간을 구현한 주거·오피스·상업시설 등을 아우르는 완성형 상품이다. 총괄 PM 사를 맡은 네오밸류는 부지 선정부터 상품 기획·공간 설계·조성 등 전반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어 로컬스타치와 협력해 코리빙(Co-Living)과 코워킹(Co-Working)이 결합된 공간 '크리에이티브타운 서교'를 구성했다. 해당 공간은 삶의 질을 높이는 공유주거(LIVE)·로컬 스타트업의 거점이 되는



네오밸류는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복합문화공간 플랫폼 '누디트 흥대'를 열었다고 9일 밝혔다.

공유 오피스(WORK)·지역민과 크리에이터가 모이는 커뮤니티 장(PLAY)을 결합한 'LIVE-WORK-PLAY TOWN'을 지향한다.

네오밸류는 청년들의 개성과 가치를 공유하는 새로운 주거 공간과 업무 환경을 제공해 청년 주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적극적인 창업 생태계 지원을 목표로 한

다. 이를 위해 누디트 흥대에 도심 속 오픈 스페이스를 마련하고 지역 주민과 이용자들이 모일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해 스타트업·크리에이터 등 젊은 창업자들이 모여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아울러 누디트 흥대 내 상업 시설 위탁 운영을 맡아 흥대 권역 내 다양하고 힙한 라이프스타일을 아우를 수 있

는 공간도 구축한다.

누디트 흥대는 연면적 1만790㎡·지하 3층~지상 7층 규모의 시설이다. 로컬스타치의 '크리에이티브타운 서교' 공간을 기반으로 고개 니즈에 맞춘 타임벨 객실과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해 단기·중장기 체류 수요에 대응한다.

1층엔 커뮤니티 공간과 함께 스페셜티 커피 전문 브랜드 '테라로사'와 워크 앤 라이프스타일 가구 브랜드 '데스커', 한국의 식문화를 전파하는 평양냉면 전문 브랜드 '서관면옥' 등이 입점했다. 이 밖에 지하 1층은 장단지 숙박 고개 생활을 지원하는 공용 공간으로 운영되며 2층은 공용 오피스 공간, 7층은 멤버십 전용 조식 레스토랑으로 운영하고 있다.

손지호 네오밸류 의장은 "누디트 흥대가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는 새로운 주거 스탠다드가 되는 공간으로 거듭나는 것은 물론, 흥대 일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도현 기자 dhjung@skyedaily.com

옛 토지대장 일본식 한자를 한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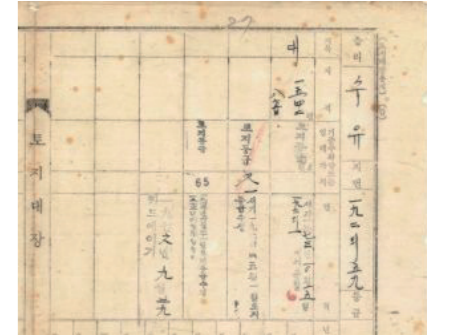
서울 강북구

서울 강북구는 옛 토지임대대장의 일본식한자 전량을 한글로 변환하는 데 성공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서울 25개 자치구 최초다.

토지임대대장은 토지 소유자와 지반·지목·면적·토지 표시 등이 기록된 토지행정의 대표적인 기초자료다. 소유권 분쟁 해결·조상 땅 찾기·토지 변동 연혁 조사 등 지적업무 전반에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1910년 토지조사 당시 일제강점기 영향으로 명치(明治)·대정(大正)·소화(昭和) 등 일본식 연호로 표기돼 있고 수기 한자로 작성돼 있어 글자 식별과 내용 파악이 어려워 그동안 민원인과 담당자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뿐만 아니라 일제의 잔재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구는 올해 5월부터 토지임대대장 한글변환사업을 본격 추진해 6개월여 만에 5만4000면 전량을 우리말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구는 한자로 된 토지 및 소



옛 토지·임대대장. 강북구

유자 정보 등을 한글로 해석하고 일본식 연호를 모두 서기 연도로 변환했다.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토지·임대대장 한글변환사업을 시행 중이거나 계획을 수립하는 상황에서 강북구가 최초로 대장 전량을 100% 우리말로 변환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구는 부동산정보 융·복합서비스 개발 기반을 마련하고 자연 재해·화재 등 각종 재난사고 시 복구사업을 할 수 있는 효율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정도현 기자 dhjung@skyedaily.com